

인권정보자료실
CPk1.40.2

박종철씨 고문사건 신문스크랩 (2)

인권정보자료실
CPk1.40.2

박종철 (2)



CROCKYBOOK

남광사 미술용모조
NAM KWANG CO.

고문경찰가석방이다라 在野반발

세계 1991. 12. 23

「朴鍾哲군」관련부영 5명중 3명 풀려나

李根安경감 고의로 체포기피 의혹

前民青聯의장 金權泰씨 참관들이 이따라 가석방의 한변협이 사상 처음 현상 (46) 고문사건과 관련, 수로 풀려나, 양국의 고문단 금까지 걸고 고문경찰 체 배중인 「고문기습자」 李根安 警의자를 의심해 하고 있다. 안철환(53) 前경기도청장인이다. 법무부는 22일, 박원근 고문사건의 이집지 않았고, 특히 李根安의 경우 공문치사사건과 관련, 진영은 가유데 故朴鍾哲군 치소시효를 불과 9개월여밖에 6년이 확정돼 부영중이던 사사건이던 부영중이던 경에 남겨두고 있지 않아, 대치안본부(현 검찰청)는 20일

수사단 潘鎭坤 前청장(48)을 24일 특별가석방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潘前청장은 지난 87년 5월 29일 동료경찰관 4명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고문치사)혐의로 구속기소돼 88년 2월 징역 6년의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거되고 있다. 潘前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黃正雄 前경위도 부영 3년 7개월만에 지난해 12월 특별가석방 조치로 풀려났으며 李正鎬씨는 만기출소했다. 이로서 이 사건으로 부영중이던 5명 가운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趙煥慶 前경위와 8년을 선고받은 姜鎭圭 前경사(33) 등 2명만 남게 됐다. 한편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지난 88년 2월 24일 부영 3개월만에 풀려나

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李根安씨는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채 공소시효가 불과 9개월여(만료일 92년 9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삼림이사회를 열고 1천만원선의 현상금을 내 걸고 공개수배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전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재야법조계에서는 「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반인륜적 범죄라 할 수 있는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들을 이따라 풀려나면 李根安씨의 검거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

朴鍾哲군 고문사건 유성방 박원

潘前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黃正雄 前경위도 부영 3년 7개월만에 지난해 12월 특별가석방 조치로 풀려났으며 李正鎬씨는 만기출소했다. 이로서 이 사건으로 부영중이던 5명 가운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趙煥慶 前경위와 8년을 선고받은 姜鎭圭 前경사(33) 등 2명만 남게 됐다. 한편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지난 88년 2월 24일 부영 3개월만에 풀려나

박종철씨 물고문경관 가석방

100/53 창당방해 배후조종 이택희씨도

1991. 12. 24

울연말 특별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서울대생 박종철씨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경관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치안본부 대공수사반 소속 반금근(48) 전 경장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대상자 9백여명과 함께 풀려날 예정이다. 반 전 경장은 지난 87년 5월 29일 동료경찰관 4명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고문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88년 2월 징역 6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반 전 경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황정웅 전 경위도 부영 3년 7개월만에 지난해 연말 가석방조치로 풀려났으며 이정호씨는 만기출소했다. 이로서 박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5명의 경찰관 가

운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한경 전 경위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진규 전 경사 등 2명만 남게 됐다. 이밖에 지난 87년 4월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택희(57) 전 신민당 의원도 이번 특별가석방 조치로 풀려난다.

姜政昌씨 무죄原審 파기

朴鍾哲군 고문치사

大法 "사건조작 직무유기 해당"

朴處源 劉井邦 朴元澤씨도 증거 신빙성없다는 판단 단칼 못

서울고법 選送

고문치사사건의姜政昌전

1심에서 집행유예의 유죄가 선고됐다. 90년 8월 서울고법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姜政昌전 치안본부장(58)과 朴處源(59) 전 치안본부 5차장(59) 등 전직 경찰 4명의 대대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이 기소된 朴處源, 劉井邦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萬濟)는 27일 피

수사5과장(朴元澤) 피고인(52) 당시 대공수사5과2계장(4) 등의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때 이들에 게 부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고법 姜政昌피고인의 죄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政昌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신빙성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4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5과장(朴元澤) 피고인(52) 당시 대공수사5과2계장(4) 등의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때 이들에 게 부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政昌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신빙성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政昌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신빙성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拷問 재발방지 강한 의지 표현

大法 「朴鍾哲군치사은폐」 무죄 2審 파기 의미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유기 법원판결은 원심의 기소된姜政昌전치안본부장 朴處源전치안본부장 劉井邦전치안본부장 朴元澤전치안본부장 4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政昌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신빙성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빙성 있는 증거 배척은 잘못

다시 열릴 항소심 有罪 선고 확실

다시 열릴 항소심 有罪 선고 확실

다시 열릴 항소심 有罪 선고 확실

다시 열릴 항소심 有罪 선고 확실

崔英勳

1991. 12. 28

500 동아 1991. 12. 28

黃迪毅씨로부터 朴元澤의 불공평으로 승계를 가졌으며, 그는 승계를 들으며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도록 사건을 감찰조사차원에서 물어버려 렸다.

그러나 1월17일 이후 인 물에 朴元澤의 사인이 폭로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朴元澤은 3명이 고문가담자를 2명으로 축소 조작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精漢慶의가 책상물림(1) 치니 朴元澤이라고 죽였 다고 변사사건발생보고서 를 작성, 劉井邦, 朴元澤에게 보고했다는 것.

劉井邦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고문이 있었고 가

다시 열릴 항소심 有罪 선고 확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만 달자가 2명의 사인을 알면 서도 이를 그대로 삼부의 보고했고 朴處源은 5차장인 이을 부인해 姜政昌은 부장에게 그대로 보고했 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의

다시 열릴 항소심 有罪 선고 확실

강민창씨 무죄원심 깨

박종철씨 고문치사 대법 "은폐조작 직무유기 해당"

1991. 12. 28

박처원·유정방·박원택씨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59)씨 등 관련 경찰관 4명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인정돼 사건이 원심으로 되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박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직권남용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씨 고문치사 경찰관 축소조작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4), 전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53), 전 대공수사2단 5과2계장 박원택(51)씨 등 3명의 경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치안본부장 강씨가 부검의사인 황적준 교수로부터 질식사라는 보고를 받고도 질식사실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을 했고 황 교수에게 '당신 은폐 잊지 않겠다'는 등의 언질을 주는 등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볼 때, 사건 발생 직후 진상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강씨가 부검의사에게 사인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경찰 자체 감찰조사로 마무리지으려 하면서 언론에 진상이 폭로될 때까지 수사에 나서

지 않은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부검의사 황 교수에게 부검소견 메모를 2차례에 걸쳐 고쳐쓰도록 지시했다 하더라도 메모 작성행위가 기자회견 때 강씨가 참고로 삼기 위한 것으로 황 교수의 직무상의

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직권남용죄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나머지 3명의 전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는 조한경씨 등 고문경찰관들의 검찰진술을 '토대로 볼 때 이들이, 고문경찰관이 먼저 구속된 2명 이외에 더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서로 모여 수사대비에 행연습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정에서 조씨 등 고문경찰관들이 애초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 '강민창씨 등 무죄선고' 원심파기 의미

27일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등 당시 경찰간부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냄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무죄선고로 인해 "공화국을 뒤바꾼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당시의 우려와 달리 법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인권경시

물론 사법적으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어 다시 무죄가 선고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인정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87년 1월14일 박씨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경관 5명에게 물고문을 당해 숨진 뒤 박원택 당시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은 진상을 알고서도 "경관 2명이 박씨를 조사하던 중 조한경 경위가 책상을 '퉁'치니 박씨가 '억'하고 죽었다"고 연행피의자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작성해 유정방 대공수사2단 5과장에게

론에 박씨 사인이 폭로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박처원·유정방·박원택씨 등 3명은 고문 가담자를 2명으로 축소조작하기 위해 관련 경찰관들의 입을 맞추고 진술연습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 도피행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강씨에게는 수사 지휘책임자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박씨 등 3명에게는 서로 짜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부검의 황씨에게 사인을 쇼크사로 해 기자회견용 발표문을 만

'고문치사 조작' 책임소재 확정 수사당시 의혹은 아직 그대로

1991. 12. 28

인권경시 관행에 일단 '췌기'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비록 재판에 회부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 박씨 고문 가담 경관이 1차 구속자외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종교단체에서 이를 폭로할 때까지 수사를 끈 부분과 △당시 수사검사가 상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부분 △1차 구속경찰들에게 입다물 것을 종용한 기관이 경찰발고도 더 있었다는 변협의 주장 등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의혹'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씨 고문치사·축소은폐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졌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했다.

유 과장도 당시의 정황에 비해 물고문이 있었고 가담자가 2명보다 많음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상부에 보고했고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5차장도 이를 묵인한 채 강민창 치안본부장에게 보고했다. 강민창씨는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로부터 박씨가 물고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듣고도 치안본부 간부들과 회의를 거쳐 16일 질식사사건인 심장쇼크사로 언론에 발표하고 황씨에게도 쇼크사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진상을 덮으려 했다.

강씨는 또 사건수사를 경찰 자체 감찰조사 차원으로 마무리지으려 하다가 17일 오후 언

들어달라고 한 부분은 발표문 작성이 황씨의 법률적 업무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강씨가 이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했던 점이 인정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강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약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이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범인도피의 공모·공범관계 성립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를 대법원공동재판 연구관들에게 배당해 연구하도록 하는 등 1년4개월 남짓한 심리기간 동안 상당한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범 기자>

大學街 재야단체

朴鍾哲 추모집회

지난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朴鍾哲 군 5주기인 14일 대학가와 재야단체 등에서 추모집회를 가졌다. 아고 박군의 소속 학교인 서울대 연희관에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추모집회를 가졌고, 오후 2시에는 동국대 대학광장에서 서울대추모회의의 주관으로 추모집회가 열렸다.

검찰이 「정치」 민감해선 안돼

朴軍사건 주임검사 安商守 변호사



인터뷰

부검醫 黃 박사 진상 규명 일등공신 상부 지시 없어 추가 수사 못해 회한

14일은 고朴鍾哲군의 5주기 당시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朴軍(당시 21세)인 어학과 3인은 서울龍山구 남동동 소재 治安本部대공 부서의 한 민실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 인 신씨의 소재를 추궁당 하였다. 신씨의 물고문을 받고 진상에 속했다.

이 조사를 받다 숨졌다며 변호사인 수사지휘를 맡고 있었다. 공안 2부장인 治安本部 5차장 朴處源(당시 41)은 미리와 있었는 데 나는 민가 심상치않은 생각이 들었어. 차치안에게 세가지 사항을 물었다. 시체를 경찰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옮겼는지, 부검의 黃迪驥 박사가 부검집

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사가 아닌 대학병원의 의사로 해부검 부검장소 에 유족대표와 대학병원의 과의 한명이 임회하는 것을 알았다. 검찰이 유가족들을 부부장은 내게 治安本部 대공부에서 대학생 한명

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사가 아닌 대학병원의 의사로 해부검 부검장소 에 유족대표와 대학병원의 과의 한명이 임회하는 것을 알았다.

1992. 1. 14

은나 부검을 진행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됐다. 당시 黃 박사의 부검소

『불합게도 黃 박사는 부검 직후 朴군이 유족들에게

『상부에 수사계회를 열었지만 수사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임원진사가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는 재야에서 바라본 검찰의 위상에 대해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재야에서 바라본 검찰의 위상에 대해 불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林彩奇〉



朴鍾哲5주기: 부검醫 黃迪駿씨

【왜 인정을 하면 자꾸 찾아와서 괴롭힘을 끼여왔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종철씨의 고문지사사건 5주기를 맞아 14일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의 부검을 맡아 사인을 밝혀냈던 고려대의대 법의학연구소 황迪駿(44)씨는 실형선에서 영구외출을 하면서도 박씨의 기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다고는 못 친왕에다 인터넷을 통한 사투쟁을 표시했다.
 오빠는 무슨 날까지 아나라고 질책하자 황씨는 「왜 모를지 모르겠어요」만도 하지 않습니까. 영웅합시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나서 황씨는 이오 「왜냐하면 그이 영웅이 그간엔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영웅이란 영웅적 행위를 했을 때 한 순간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 행위를 했을 때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젠 잊을만도 일쯤 합시다”

진실 밝혔어도 비난전화 안타까워

부검이 고문사임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을 때 한 순간에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웅에게 진실을 밝힌 건 문가답지 않게 그뒤의 잘못 합인적인 고뇌를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후에도 五大洋이니 金貴井양 사만사건때 매스 잡을 때마다 결연전화도 가끔 왔지만 당시의 그렇게 잘났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도 많았어요』
 당시 사건을 되돌아보면 서기연씨는 인물로 황박사는 주저없이 그때 부검을 지휘했던 安商守법호사를 당시 서울지검 검사)를 꼽았다.
 『安법호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그 양반의 전화를 주기도 하는데 뭐랄까 풀비가 잘 맞았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더 힘든 걸정을 겪었죠』
 『법호사라면 보람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정말로 감정이 많았어요』
 의학 가운데서도 세속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 뛰어난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황박사는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
 황박사는 88년 1월 춘천사범 1추기를 맡으며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뒤 1년간의 휴직생활을 거치고 그 이듬해인 89년 10월에 스승인 文顯박사(87)의 추천으로 모교에서 일하게 됐다.
 「모교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2년의 별정직만 아 죄제자 한명 못 가르쳤을 거다. 평생을 연구할만한 한 품목이 안돼서인지면 비는 하생이 없습디다. 허 무빨리 법의학이 제자리를 잡아야 의학을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어. 황박사는 이서빨리 자신에게 배울 지원자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글 = 李仲換기자
 사진 = 朴澤培기자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앞마당에서 박종철씨의 5주기를 기리는 집회를 마친 3백여명의 재야인사·학생들이 촛불행진을 하려다 경찰이 막자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박종철씨 5주기 추모집회

87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5주기 추모집회가 14일 전국 각 대학에서 열렸다.
 박종철기념사업회·전국 민주화 운동유가족협의회·서울대총학생회 등 6개 단체 회원 1천5백여명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고 박종철 열사 5주기 추모대회'를 가졌다.
 또 서울·고려·동국대 등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의장 김영하 중앙대 학생회장·23·건축4) 학생 1천여명은 오후 3시30분께부터 중구 장충동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고 박종철씨 5주기 추모 및 92년 총선승리를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

를 갖고 민주후보추대를 통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진영의 단일선거연합 건설을 촉구했다. 서울·중앙·동국·단국·숙명여·숭실·영남대생 등도 오후 1시께 각각 총학생회주최로 고 박종철 열사 5주기 추모집회를 가졌다.
 깨부터 전주지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종철 고문’ 강민창씨
 파기환송사건 첫 공판
 1992. 5. 26
 박종철씨 고문지사사건 축소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62)씨 파기환송사건 첫공판이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강씨는 이날 공판에서 “87년 1월 박종철군이 숨진 직후 당시 부검의였던 황적준씨에게 1백만원의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사례비이며 사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경관들의 고문에 의해 숨진 지 14일로 6년이 된다.

그의 죽음은 철권통치 아래 기죽어 지내기만 하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군사독재에 대한 분노는 마침내 6월 민주대항쟁으로 분출하였다. 6월항쟁을 통해 지금까지 억압과 통치의 대상이었던 국민들은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게 됐다.

1993. 1. 14

인권상황 갈수록 악화

하지만 노태우 정권 등장과 함께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온 국민의 뜻은 좌절되었다. 노 정권이 약속한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을 포함한 민주화는 빈말일 뿐이었다.

노 정권은 90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바도 있다. 그 규약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할 책임을 지며, 국민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합부로 체포·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소신과 발표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리고 노 정권은 한국에 양심수가 없다고 공언하고 다녔다.

그러면 진정 6공화국 아래 인권신장이 이루어졌던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최고 1천6백명까지 이르렀던 6공화국의 양심수, 아직까지 8백

여명이나 남아 있는 정치범, 그 리하여 하루평균 구속자가 1,611명인 사회. 88년 이후 각종 의문사로 혹은 민주통일을 외치며 산화해간 이들이 82명. 어디 그 뿐인가? 불법연행·체포와 감금, 변호인 접견 방해, 잠 안재우기·무차별 구타 등의 고문으로 부풀려 공표되는 소위 용공사건.

이상이 6공화국 인권 상황이다.

91년 5월, 노 정권 치하에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이 되살아

전국연합은 '민주정부' 수립이란 희망을 키워갔고 '92년 대선에서 가필코 정권교체를 하자'며 온갖 가시밭길을 헤쳐나왔다.

지난 12월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의 패배는 많은 슬픔을 낳았다. 그러나 좌절하기에는 박종



박종철씨 6주기를 맞으며



인재군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났다.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진압경찰의 쇠파이프에 생명을 빼앗긴 것이다. 6공화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저항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분신투쟁도 줄이없다. 그리고 이 투쟁은 6월항쟁 못지 않은 민주화투쟁으로 발전해갔다.

그런데 노 정권은 또다시 인권을 짓밟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이다. 이 땅의 양심적 젊은이를 자살방조자로 구속했다. 이는 젊은 양심까지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값진 생명들의 송고한 투쟁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열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민주정부 수립의 열망을 받들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발족했다.

철군을 비롯한 선열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한이 너무나 크다. 지금 내외언론들은 김영삼 새정부 등장을 두고 '문민시대 개막'이라고 추켜대면서 지난 32년간 계속되던 군부독재정권 때

의 암울함이 사라진 듯한 희망에 찬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정부로 변화를 염원했던 국민들도 이른바 문민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신한국'맞는 개혁 기대

폭압적 권력기구에 의해 죽어간 박종철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정부에 바라는 소망은 거창한 개혁 청사진이 아니다. 단지 거

꾸로 된 법치국가, 뒤틀린 인권 상황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쟁하던 민주 통일 인사, 그리고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투옥된 노동자, 학생, 빈민 등 이땅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것이다.

또 5, 6공화국 때 생겨난 각종 의문사를 속 시원히 진상규명하여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고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식을, 혹은 지아비를, 아니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철창 속에 가두어놓고 하루하루를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의문의 죽음에 밤낮으로 분통해 하셨던

가? 인정과 도리를 모르는 금수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개탄스런 인권 환경, 그것을 올바르게 되돌려놓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 민주와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우리들의 몫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신한국'을 내건 새정부, 김영삼 정부에게도 인간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제 조치를 기대해본다. 자신이 외친 '문민정부'가 진정으로 과거 '군부독재'와 구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권실현의 시대가 마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양심수는 없어야 한다. 비인도적인 고문도 사라져야 한다. 이들과 같은 겨울에도 풍겨다며 거리를 헤매일 수배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치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약법, 집시법 등 인권을 초개같이 아는 악법도 없어야 한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자만이 법을 해석하는 법치가 상실된 무질서도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악법·고문 사라져야

한마디로 우리 국민 모두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온갖 고문과 불법 행위가 뿌리채 뽑힐 것이며, 그에 따라 열사들의 명예도 국민들의 민주정부에 대한 희망도 새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朴鍾哲 고문警官1명 또 가석방 밝혀져

1993. 1. 14

5명중 4명 풀려나

朴鍾哲은 고문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988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정치안본부 대공수 사관 姜鍾圭씨(35·87년 당시

경기가 지체돼 1월 가석방 대상이 13일 확정됐다. 이 중 4명(이산준·김구수·정원·고문정환)은 5명중 4명 풀려나고 안준교·도수석·부영준·안준교·정원(지정)을 제외한 4명만 모두 풀려났다. 姜씨의 변호인(법률사무소 47당 시정)은 1월13일 대법원(재판장 박정호)에 상고한 뒤 90년5월 대법원에서 90년5월 대법원에서 풀려났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姜致昌(지치안)·분부장 朴源(박원)·지치안부 5차장 등 3명의 대공수 91년12월28일 유죄확정된 원상회기회 신복근(신복근)은 풀려났다. 1명만 풀려나고 4명이 내내 복역하고 있다.



아들 어루만지는 아버지 고 박종철씨 6주기 추모법회가 치러진 13일 부산 사리암에서 아버지 박정기씨가 종철씨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부산/최익림 기자

박종철씨 6주기 추모법회

【부산=최익림 기자】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6주기 추모법회가 13일 오전 10시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65)씨 등 가족과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배다지 상임의장 등 재야단체 회원, 시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사하구 괴정3동 240 사리암에서 열

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가 갈수록 박종철 열사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가 잊혀가고 있으나 박 열사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하고 "박 열사에 대한 추모사업을 범국민행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박종철씨 등 이 땅의 민주화를 요구하다 쓰러진 1백56명의 민주인사들 명예를 죽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별사면 때 5공비리 인사들을 무더기로 풀어주면서 양심수들에게 들러리를 서게 한 요식적인 사면이 아니라 모든 양심수들의 대대적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씨 고문 수사관

5명중 4명 풀려나

1993. 1. 16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징역8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온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강진규(35)씨가 지난해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경찰관 5명 가운데 징역10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한경씨를 제외한 4명이 모두 만기출소 또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강씨는 87년 2월 조한경씨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1차로 구속돼 징역8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강씨의 복

역기간이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 가석방 요건에 해당돼 일반 가석방자들과 함께 가석방조처했다"고 밝혔다.

1987년 6월 6일 평壤의 불씨가
 1년 5개월을 거슬러
 1년 5개월을 거슬러
 1년 5개월을 거슬러

朴鍾哲군 사건관련자 어디서 무엇하나

1년 5개월을 거슬러 가선방
 행하여 2년째 살고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이원우를 공산당의 비
 교편을 하느 것이로 알
 려졌다.

부장의 특수조사실은 북
 동했다.
 안씨는 서울지정수사팀
 에서 4.5차레나 조사 및
 공소유지정당성을 판단 수
 계를 사를 상부의 올렸었다
 의 부임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당시 金聖基 부부장관
 은 87년 2월 趙秉世가
 수감되었는 趙秉世가 노
 수를 받음. 김철천은 사건부
 마를 위함이었어. 아나
 의혹을 사기도 했었다. 이
 적인 보도소속사 한 때 부
 이었고 87년 5월 徐東權
 장과 함께 사임했다.

1. 호문은 왜 姜政昌·朴處源씨 재판 계류중 5. 검찰수뇌 徐東權·鄭錄永씨 6共서 요직 주임검사 安商守씨 「인권변호사」로 활동

1993. 5. 15

홍(7)와 차근의 모친을
 부주의로 趙秉世 姜錫基
 (36)는 사건발생 5일만인
 87년 1월 10일 고문차사
 의로 구속됐다.

趙秉世가 1심에서 징역
 15년 2달에서 징역 10년
 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 安商守(노)의
 서 고문차사 姜錫基(노)의
 재판 부임중이다.

姜政昌(87)은 1심에서 징역
 15년 2달에서 징역 8년
 을 선고받고(대법원에서
 형) 趙秉世가 1심에서 징
 역 15년 2달에서 징역 10
 년을 선고받은 2년여가
 지난 후 고문차사 姜錫基
 부고 시 반년째이다.

차사사건의 발생후 14일
 뒤 1심에서 징역 14년
 6달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관 趙秉世(노)가
 98년 12월 22일 형기감부를



姜政昌씨



金勝勳씨



李永旭씨



黃迪駿씨



朴處源씨



吳演相씨



徐東權씨



安商守씨

姜政昌(87)은 1987년 1
 월 15일 차근의 모친을 고문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
 6달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관 趙秉世(노)가 98년
 12월 22일 형기감부를
 결정했다. 차근의 모친은
 1987년 1월 10일 고문차사
 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
 관 趙秉世(노)가 98년 12월
 22일 형기감부를 결정했다.
 차근의 모친은 1987년 1월
 10일 고문차사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관 趙
 秉世(노)가 98년 12월 22
 일 형기감부를 결정했다.

87년 5월 趙秉世가 1심
 에서 4.5차레나 조사 및
 공소유지정당성을 판단 수
 계를 사를 상부의 올렸었다
 의 부임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당시 金聖基 부부장관
 은 87년 2월 趙秉世가
 수감되었는 趙秉世가 노
 수를 받음. 김철천은 사건부
 마를 위함이었어. 아나
 의혹을 사기도 했었다. 이
 적인 보도소속사 한 때 부
 이었고 87년 5월 徐東權
 장과 함께 사임했다.

1993. 2. 0. 9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4명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었다. 박종철은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기소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당시 검찰장부들의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은 국민을 분노케 해 민주화 대열에 나설게 하고 역사 의 물결기를 들끓게 했다. 그러나 사건자체가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탓인지 법정발정선인 행하러 비어 있었다."

「고문致死」경관 어제 결심공판

팅빈 방청석...5분도 안돼 "끝"

"나는 모른다" 되풀이...2년구형

서울고법 안대讚(안대환) 판사는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4명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었다. 박종철은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기소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당시 검찰장부들의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은 국민을 분노케 해 민주화 대열에 나설게 하고 역사 의 물결기를 들끓게 했다. 그러나 사건자체가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탓인지 법정발정선인 행하러 비어 있었다."

1993. 2. 0. 9

박종철씨 치사 은폐 조작
박치원씨 등 3명 2년구형
1993. 2. 0. 9
서울고법 안대환 판사는 8일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치원(65·당시 치안본부5차장), 유정방(54·대공수사2단5과장), 박원택(52·5과2계장)씨 등 3명에 대해 원심 구형량대로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아리의진죄가 없다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4명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었다. 박종철은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기소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당시 검찰장부들의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은 국민을 분노케 해 민주화 대열에 나설게 하고 역사 의 물결기를 들끓게 했다. 그러나 사건자체가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탓인지 법정발정선인 행하러 비어 있었다."

「박종철사건 은폐」경관들 최후진술
판"이라며 원판판결을 계속했다. 박종철은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기소된 박종철(66)·박치원(65)·유정방(54)·박원택(52) 등 당시 검찰장부들의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은 국민을 분노케 해 민주화 대열에 나설게 하고 역사 의 물결기를 들끓게 했다. 그러나 사건자체가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탓인지 법정발정선인 행하러 비어 있었다."

억울한 죽음 '신원권' 첫 인정

서울고법

박종철씨 가족에 추가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박씨의 유족들에게 1심보다 4천만원이 많은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족 중 한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가족들의 권리인 '신원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중 일원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법질서에 호소해 진실을 밝히고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신원권)가 있다"고 판시하고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해 박치원 치안감 등의 박종철씨 사망 진상 은폐행위는 박씨 등 유족들의 신원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 유족들은 아들 종철씨가 지난 87년 1월 치안본부 남영

동 대공분실에 연행돼 경찰관들의 물고문 등으로 인해 숨지자 지난 88년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치안본부장 등은 박씨가 숨지자 이를 뒤 기자들에게 "타" 치니 '억' 하고 숨졌다"고 사망원인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姜玟昌씨 有罪 확정
 「朴鍾哲군 사건」大法 상고심 500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容俊)는 27일 박종철군 사망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끝내고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60)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기소 뒤 5년4개월 만에 모두 끝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88년 3월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90년 8월 항소심 무죄, 91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파기, 93년 4월 서울고법 징역 8월·집행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93. 7. 28 강민창씨 유죄 확정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민창(60)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기소 뒤 5년4개월 만에 모두 끝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88년 3월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90년 8월 항소심 무죄, 91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원심파기, 93년 4월 서울고법 징역 8월·집행유

朴鍾哲군사건 세상公開

교도관들 도움 있었다



朴鍾哲군의 고문치사사건이 알려지기까지는 암암적인 교도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문치사 사실이 밝혀진 뒤 87년 1월말 서울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녀들.

수감된 고문 두警官의 편지 규칙 깨고 여러차례 내보내

법원정부를 출범의 초석이 폐쇄소기도 사실이 세상의 한 행위인 교도관의 복부
된 6.10민주항쟁을 이끌 알리지까지는 암암적인 규칙을 위반한 일이다
였던 서울대생 박종철 교도관들의 용기가 한류의 민주화를 열었던 바를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했다. 6월 14일 7주기를 맞아
지 14일 7주기를 맞아
한다.

부끄럽지 않은 아파지가
되기 위해 암암의 재판
동정을 밝히려고 한다.
지 14일 7주기를 맞아
를 기념하며 교도관들의
의 힘으로 사의 진상을 밝
한다. 교도관의 진상을 밝
아지면 영웅의 이름을
교도관이든 교도관이든
뜻을 전해왔다.
OOO간정출판
발행케한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밝
87년 1월 19일 밤 서울 명동성당
를 비롯 9명의 교도관
을 고문했던 교도관 5명
수수의 趙漢慶(趙漢慶)의 姜
非鏡(非鏡)이 고문치사사
진했다. 간정출판의 趙
이 간정출판의 姜非鏡
을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수감된 고문 두警官의 편지
자유롭게 출판된 趙漢慶의
수감된 고문 두警官의 편지
실용서적사(實用書積社)의
군사건의 진상을 밝
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해야 한다. 이
을 실천한다. 李政基(李政基) 두
정리했다.

朴鍾哲군 오늘 7周忌
추모 조영을 건립키로
지난 87년 경찰의 불고
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
鍾哲(박종철)을 추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조영물의
서울대에 건립된다.
아
차군 기념사업회는 차군
고문사 7주기인 1월 14일 이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추모
식과 기념조영물 건립을
정하며 기념조영물 건립을
위한 발기위원회를 오는
2월말까지 구성하고 내년
도에 제막식을 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했다.
교도관들의 투쟁 수차례
의 부로 金勝勳(金勝勳)이 편지
마침도 金勝勳(金勝勳)이 편지
에게 趙漢慶(趙漢慶)이 편지
세상을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87년 1월 14
지 14일 7주기를 맞아
관들에게 간정출판사(간정출판
하기 위해 박종철(박종철)이
로 했으니까 박종철(박종철)이
『간정출판』에 편지
『간정출판』에 편지
로 간정출판(간정출판)이
추모 조영물 건립을
정리했다.
〈李政基기자〉

사건으로 퇴직한 경찰관에게 구내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는 등 3년 동안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7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퇴직한 황정웅(52·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위)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경북경찰청 구내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들은 "황씨가 기존 업자를 쫓아내고 식당영업권을 얻어내면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간부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박종철사건 경찰관

식당운영권등 특혜

1994. 10. 13
경북경찰청이 박종철 고문치사

「朴鍾哲고문」가담 前경찰간부

구내식당운영권 특혜

경향 94. 10. 13.

【大邱】경북지방경찰청이 박종철고문치사사건에 가담했던 전직 경찰간부에게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맡기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가담한 황 모씨(52·당시 경위)는 92년 7월부터 3년째 경북 지방경찰청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3년

제 1년마다 황 씨가 특혜를 받고 있다. 황씨가 운영하던 구내식당 운영권 10억원에 수수의 일 수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년째의 경우로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郭泰燮 기자

씨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비리를 사고 있다. 황씨가 운영하던 구내식당 운영권 10억원에 수수의 일 수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년째의 경우로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郭泰燮 기자

이로 구성된 民統聯 사무처장
李富榮씨가 수감되었고 두
경찰관이 李씨의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趙漢
慶의 찬송가를 부르며 지냈
다. 李씨는 뭔가 이상하다
는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68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가
75년 동아일보를 정사건으로
해직된 그에게 아저씨 기자의
후각이 남아있었다. 李씨는
친한 고교동창을 통해 고문경
환관들과 간접 대화를 시도했
다. 먼저 고문경환관들이 검
사에게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렘했다.

후과가 많았다. 나갔다. 박
영호 대공수사단의 상급들이
편견나게 영호대공수사를 드
나치게 믿었기 그 증거였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두 경찰관
의 입을 막기 위해서 면회를
오르듯이 부른 것이다. 면회내용
은 고문경환관들 통해 李씨에게
속속 전해졌다. 李富榮씨의
증언.

김관순의 기억

<주목> 상급들의 말이 잘 안
떠히자 대공수사단의 대부분
朴處源치안감까지 특별면회를
왔다. 그는 두 경찰관에게
「1시간을 휴가를 주겠다. 하겠어
나 오늘 가볼까? 너희들이
있고 싶은 가짜들의 증거를 적
정 말한다. 영감들이 과중해서



◇李富榮씨



◇金正男씨



◇威世雄신부

에게 귀담해주었다. 두 경찰
관은 李씨가 차관사건을 일으
킨 「취재하고 있는」 줄을 전
혀 눈치채지 못했다. 李씨는
법인이 3명 더 있었으며 이 때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李富榮씨(현재 民統聯사무처장)

이들을 방관하지 않았던 것이
감이다. 해고고수형은 노년
과 죽음까지도 자오해야 할 지
모를 일의 참정해준 동지들을
게 감사할 따름이다. 당시의
폭압정치와 정경은 이 때 법
에나나 자치정임을 단행하
고 문란한 비정인 관료로 임
했다.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하
기 위해 도와주는 고문경환관
리노서로 나야의 관계를 모르
도록 입을 추켜했다.

金正男씨 심문자성

영호대공수사단 47인원기회대
炳務씨(현재 47인원기회대
표)에게 무사히 李씨의 메모
를 돌려주었다. 李씨는 서대
문형무소에서 68년 10월 19
일 무하다 하근사건의 연루자
79명 중 1명이었다. 그가 고
문관으로 있을 때부터 李富榮
씨를 비롯, 재야인사와 잘
알고 지냈다. 李씨는 수소문
에 金正男씨를 찾아가 李
가 세 차례 보낸 메모를 한꺼번
에 전해주었다. 87년 3월 초
수이었다. 88년에 李富榮씨를
숨겨줬다는 혐의로 수배중에
있었던 李씨는 金正男씨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이를 뒤 경찰
에 붙잡혔다. 李씨가 며칠만

씨는 86년 10월 시내 한 음식
점에서 金正男씨를 만나 도파
자를 받게 불렀다. 金正男
씨는 이때 불장하지 않고 달아
나 수배되었었다. 李富榮씨
는 김가릴 당시 金正男씨의 소
개로 高泳壽 변호사 집에서 5
개월째 숨어지내고 있었다.
金正男씨는 81년 초부터 高
문경환씨가 이 때 民統聯사무
처장인 과정에서 金正男씨가
일조를 하였으므로 알려졌었다.
李富榮씨와 金正男씨는 서

올대 정경환과 영호대공수사
기로 68년 10월 19일 서울
이었다. 대학 시절 李씨는 문
리대학생회 기획부장이었고
李씨는 문리대신문 「새시대」의
기자였다. 李씨가 75년 신문
사에서 해직된 뒤부터 그 후의
서로 노년과 재야인사를 함께
했다.

金正男씨는 李씨가 보낸 쪽
지를 읽은 사건의 심각성을 단
번에 간파했다. 그는 곧 高
문경환과 상의하며 李씨의 메모
를 읽을 때 영호대공수사장을
다. 무척 세상에 어떻게 알
리느냐는 것이었다. 의신기
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도 생각
했다. 그러나 신문을 모르면



「6월항쟁 點火」 회오리 「拷問致死」

발생이 하나 죽었으니 부당
까지 말라」면서 1인원짜리
물통을 내밀었다고 한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까지
찾아와 재수사유를 하지 말
라」고 호소했다(김관순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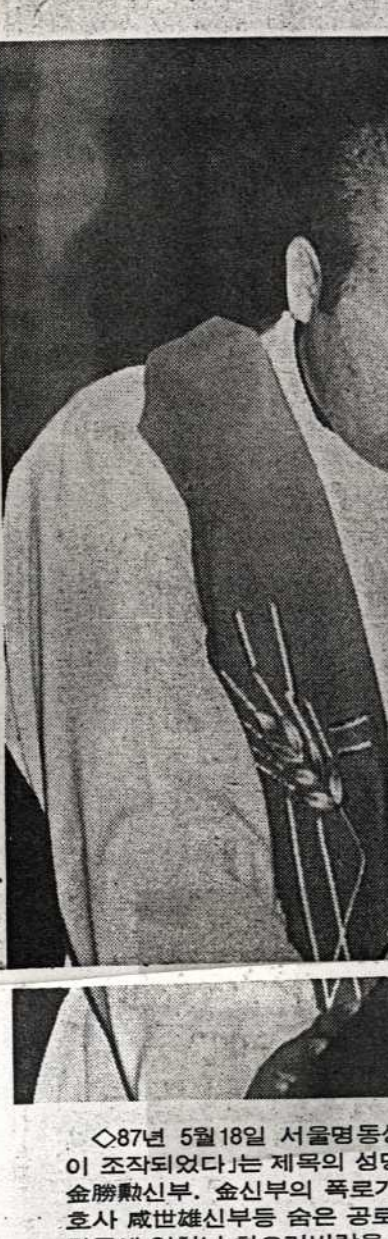
정와대공수사단 수사비서관인
金正男씨의 아호. 2층층이의
서 말까지 한 번의 서신장도
두 세 차례에 걸쳐 쪽지를 보내
소박이 보내왔다. 계속되는
李富榮씨의 이야기.

더 지체했다던 일이 수포로
들아가고 그 뒤 정경환도 전역다
른 영호대공수사장을 찾았다.
金正男씨는 이때 영호대공수
장은 高泳壽 변호사 집에서 숨
어지내고 있었다. 그는 李富
榮씨에게 편지를 제보했다. 김
정호는 수배되었었다. 李富榮

기도 전에 정경환에게 새나갈
가능성이 커 이 방법도 일찌감
치 포기했다.
부도한 민정부정당들을 통해
부도한 민정부도 생각했다.
金正男씨의 高문경환사는 統一
民主黨 관계자와 인연이 깊
숙했었다 심판을 거두지 못했

이 수석으로 불리기가 시작됐다.
그동안 자기만의 영향력만 부
권을 한다면 자유언론을
이 이를 제기하고 상해 전했다.
5월 27일 「민중일보」부의
행정의 「다름」이었다. 또
이 사건이 전후개헌에 불리한
정당부의 세력파를 형성시
켰다. 盧承洙(부총리)와 張世
東(안기부장)의 책동에 지고
간담서 불행하게 되었다.

차관고문치사 李富榮씨 사건
이 사건은 87년 5월 18일
아르헨티나로 갔다. 그날 밤
우르구에 갔다. 8월 1
일 「민중일보」 부의
5월 27일 「민중일보」부의
행정의 「다름」이었다. 또
이 사건이 전후개헌에 불리한
정당부의 세력파를 형성시
켰다. 盧承洙(부총리)와 張世
東(안기부장)의 책동에 지고
간담서 불행하게 되었다.



◇87년 5월 18일 서울명동성당에서 「朴鍾哲고문치사사건의 진상
이 조직되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金勝勲신부. 金신부의 폭로가 있기까지는 李富榮 金正男씨, 高泳壽
변호사 威世雄신부등 숨은 공로자들의 역할이 컸다. 사제단의 성명서는
정국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와 6월항쟁의 불길을 뽐냈다.

선 86년 10월 시내 한 음식점에서 金正男씨를 만나 도표 자금을 받으려다가 안기부수 사관들에게 붙잡혔다. 金正男씨는 이때 붙잡히지 않고 달아나 수배된 것이었다. 李富榮씨는 高泳著 변호사집에서 5개월째 숨어내고 있었다. 金正男씨는 81년 초부터 高連호사와 잘 안나지 않았다. 高連호사가 이때 民韓黨 후보로 공천받던 과정에서 金正男씨가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正男씨는 李씨가 보낸 쪽지를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는 곧 高連호사와 상의하며 李씨의 메모를 완결된 형태로 재구성했다. 문제는 세상에 어떻게 알리느냐가 그것이었다. 의신자들이에게 알리려는 방법도 생각했다. 그러나 신문은 보도가

다. 統一民主黨측은 확실한 증거없이 폭로행위를 정부 쪽의 영웅세를 두렵워 한 것이로 알려졌다. 統一民主黨의 당시 청문회를 전후해 정부·여당측의 영웅세가 계속돼 영웅가 영구 신성되었다. 金泳三(統一民主黨총재)은 87년 5월 25일 의정총회에서 「청문회 이후 나의 개인 제보가 있었으나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천주교측의 공개가 먼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高泳著씨

이제 1월 14일 천주교측을 통한 공개였다. 金正男씨는 74년부터 천주교의 민주화 운동에 관여했으며 84년에는 威世雄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高連호사가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흥보유정인 威世雄신부를 찾아 金正男씨가 재구성한 문건을 전달하자 4월 25일 공개였다. 高連호사는 차근고문치사 후 소조각의 정치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이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했다.



◇威世雄신부

폐·조작 들통 통틀기 뒤바뀐

기도 전의 정통기관에 새나갈 가늠이 커 이 방면의 일찌감치 포기했다.

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후로는 高連호사의 부인 黃菊子씨가 威世雄을 만났다. 金正男씨는 차근차근 공개해줄 것을 간청하며 호수강의 전하의 편지를 써서 威世雄에게 보냈다. 金씨는 또 사제단의 발표할 서류를 보내고 작성해 전달했다. 사제단이 나중을 발표한 서류는 金씨가 쓴 것을 조금 고친 것이었다. 金씨는 당시 재야에서 정면에서 장영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었다. 高泳著 변호사의 경우.



◇87년 5월 18일 서울명동성당에서 「朴鍾哲근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金勝勲신부. 金신부의 폭로가 있기까지는 李富榮 金正男씨, 高泳著 변호사 威世雄신부를 숨은 공로자들의 역할이 컸다. 사제단의 성명서는 정국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와 6월항쟁의 불길을 댔었다.

「아니고 천주교계를 공개하느냐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정적으로 생각해서 사제단에 매달렸지. 5월 중순쯤 사제단에서 5월 18일 관주항쟁 회생자 추모미사 때 발표할 것 같다고 열렘었다. 그와 아내가 그날 미사에 참석해 과연 성명서 발표가 제대로 될 것인가 조마조마한 심정이라 기다렸다. 추모미사가 끝나 뒤 발표가 이뤄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발표 통해 사제단 통해... 眞實 밝혀내... 간접 면담 「잡혀온 警官」 李富榮씨 중 옥

한기 신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고 柳鉉錫 黃仁喆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

정오구현사제단이 발표한 성명서에 金勝勲씨가 경제계로 보고를 했다. 金씨가 1970년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지워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오구현사제단의 대표인 金勝勲 신부(威世雄 변호사 주임인 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정오구현사제단(김신부)의 확인이 있다.

진찰 재수사 착수

【서울 14일 특파원 리정근 기자】 주체관한수사국이 「진찰」 미사동 참정관인 김씨(김정철)의 무죄 판결 불만 모임을 열었다. 진찰관 사제단의 발표에 새우도 불사한 정오구현사제단의 불복이다. 정오구현사제단의 불복은 1970년 5월 18일 하역 8시 30분경 서울명동성당에서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 추모미사가 끝나자 金勝勲신부가 제대양에 나와 열광적으로 수미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정오구현사제단이 발표한 성명서 각 「팩트」 다 버렸고 거짓이 너무 크므로 믿지 않게 되었다. 「팩트」 정오구현사제단의 주장과 5월 18일 관주항쟁의 공판기록을 시인하며 이를 왜곡수정했다. 정오구현사제단의 주장에 따르면 「진찰」 「진찰」의 배후가 정오구현사제단이므로 1970년 5월 18일 관주항쟁의 희생자 추모미사 때 金勝勲신부(威世雄 변호사 주임인 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정오구현사제단(김신부)의 확인이 있다. 「진찰」 「진찰」의 배후가 정오구현사제단이므로 1970년 5월 18일 관주항쟁의 희생자 추모미사 때 金勝勲신부(威世雄 변호사 주임인 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정오구현사제단(김신부)의 확인이 있다.

朴鍾哲군사건 「제2층격」의 與野

「4.13조치」로 統一民主黨의 內閣 사건이 政府의 對野黨 對策의 重要한 地位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政府의 對野黨 對策의 重要한 地位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政府의 對野黨 對策의 重要한 地位을 차지하고 있다.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餘錄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犯人 축소 조작 政府 전체의 책임 國調權 복 받네

犯人 축소 조작 政府 전체의 책임 國調權 복 받네

재검정 拷問과 의혹

재검정 拷問과 의혹

朴鍾哲군사건 「제2층격」의 與野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犯人 축소 조작 政府 전체의 책임 國調權 복 받네
재검정 拷問과 의혹

朴鍾哲군 拷問致死사건 전면再搜查 안뒤

朴鍾哲군 拷問致死사건 전면再搜查 안뒤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재검정 拷問과 의혹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犯人 축소 조작 政府 전체의 책임 國調權 복 받네
재검정 拷問과 의혹

朴鍾哲군사건 「제2층격」의 與野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犯人 축소 조작 政府 전체의 책임 國調權 복 받네
재검정 拷問과 의혹

재검정 拷問과 의혹
全黨大會 찬물우려 정부에 화살 民主
不道德性성으로 政局主導權 거당 民主

朴鍾哲拷問致死 전면再搜查

朴處源치안감 劉井邦 朴元澤경정 신병확보 모의가담 드러나면 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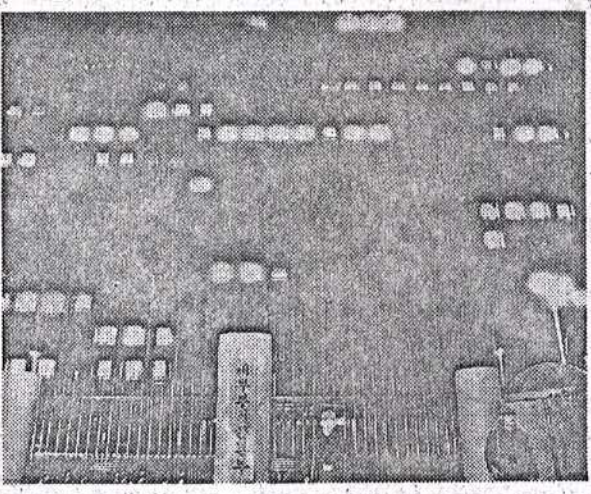
2월초 趙경위 面會내용 報告을라가

公判늦추고 對策숙의

「聲明」나오자 서둔인상

27일경 搜查결과 발표예정

法務部·檢察 高位 석달전 「造作」 알선



법무부·검찰 고위 석달전 「造作」 알선

법무부·검찰 고위 석달전 「造作」 알선

內閣인책 與 卷가 功성

黨政협의 道德的 이미지 크게 훼손... 政治일정의 영향

內閣인책 與 卷가 功성

檢 察

法務部·檢察

會長 人人人
副會長 人人人
編輯 人人人
印刷 人人人
發行 人人人
社長 人人人

本報는 二 實踐要

신개방식

보통형

대형

대한

대한일보

10월 전 우리
라에 附加시켜
제도가 적용됨
가려져야 하는
가려져야 하는
가려져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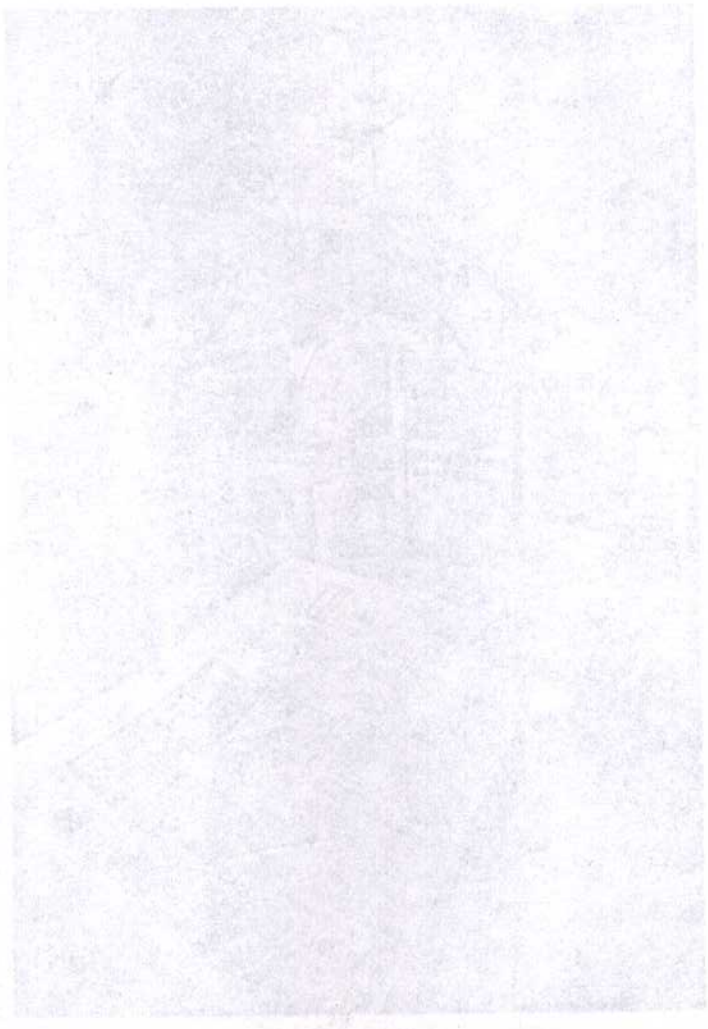
형사수설

형사수설

真跡... 一九五九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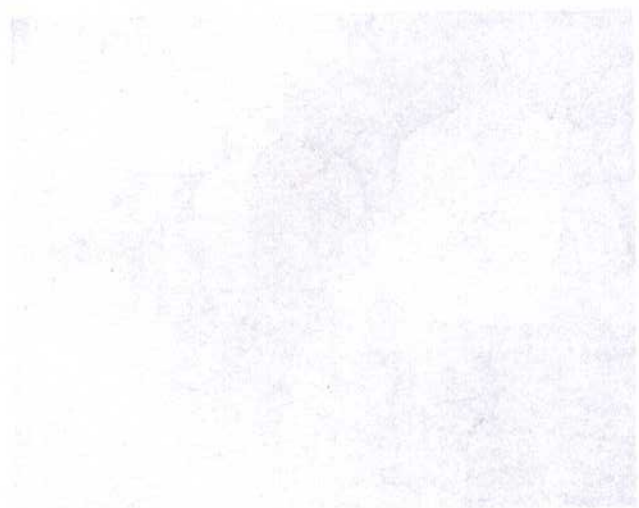
中國圖書公司

總發行所：上海南京路... 電話：...



關於... 展覽會

本展覽會係由... 主辦... 展覽日期... 展覽地點...



聯合書局三指指扣

聯合書局... 經銷...

本局經銷... 各種書籍... 歡迎各界人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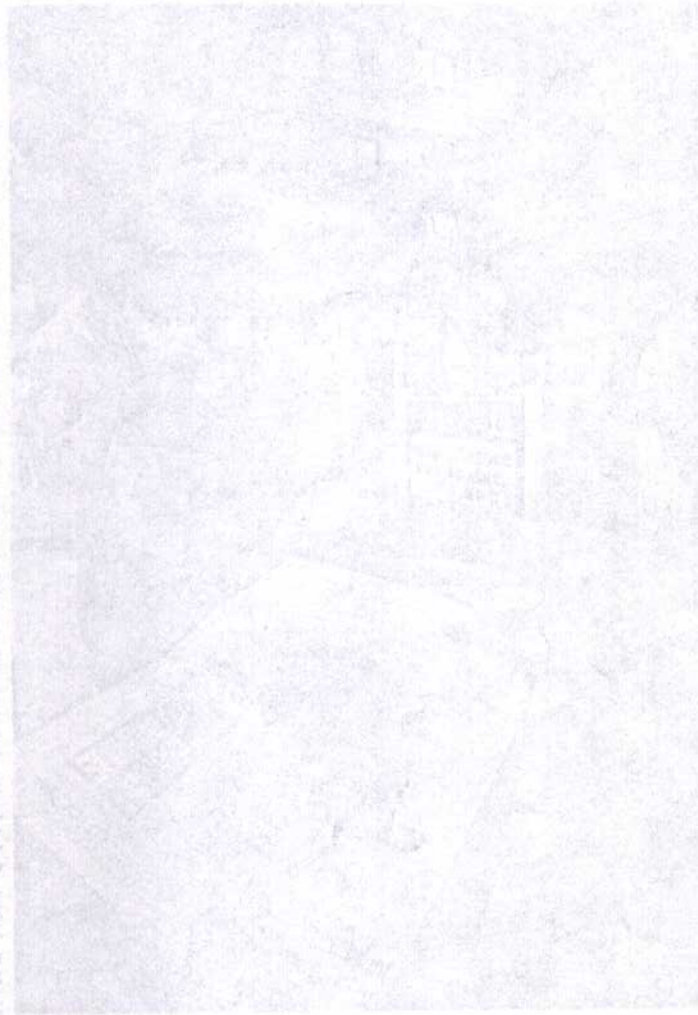
本報... 內容豐富... 歡迎訂閱...



全日新聞

中華民國二十九年五月二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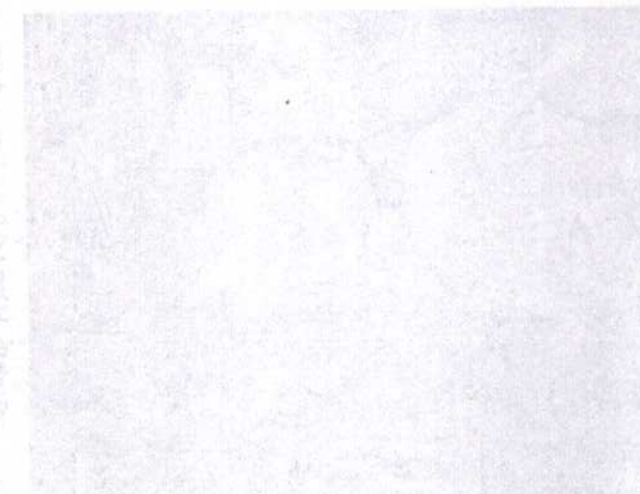
本報地址：上海南京路... 電話：...



本報記者... 關於... 之消息... 據悉... 各方... 均表... 贊同... 政府... 之... 政策... 實為... 國家... 前途... 之... 保障... 望... 各界... 人士... 踴躍... 參加... 各項... 建設... 以期... 早日... 實現... 民族... 復興... 之大... 業...

上海公共租界工部局

本局為便利市民起見，特在... 處設立... 辦事處... 凡有... 事項... 請向... 該處... 洽辦... 此佈



此為... 之... 情形... 實屬... 罕見... 望... 各界... 人士... 注意...

對空訓練團已開始

本市各界青年，為加強防空訓練，特組織對空訓練團。該團自即日起開始訓練，內容包括防空常識、防空設施、防空避難等。訓練期間為三個月，每日下午六時至八時舉行。歡迎各界青年踴躍參加。此項訓練對於提高市民防空意識，保障城市安全具有重要意義。

本報記者... 關於... 之消息... 據悉... 政府... 之... 政策... 實為... 國家... 前途... 之... 保障... 望... 各界... 人士... 踴躍... 參加... 各項... 建設... 以期... 早日... 實現... 民族... 復興... 之大... 業...



수십군데 傷處 원인도 밝혀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2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박정호(47)씨 살인사건의 원인이 밝혀졌다. 박정호씨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박정호씨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박정호씨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타”하니 “억”했다고 할때부터 믿지않았다 차군 아버지는 「그날」이후 시름시름 앓아

“시간 갈수록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잠도 못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박정호(47)씨의 아버지 박정호(72)씨는 “타”하니 “억”했다고 할 때부터 믿지 않았다. 박정호씨는 “시간 갈수록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잠도 못자”고 말했다. 박정호씨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자녀 2명인 박정호(47)씨를 살해한 박정호(72)씨.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株價 건설 景氣 景氣 상승세로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罪人家長 罪無수 없다. 心경면화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자녀 2명인 박정호(47)씨를 살해한 박정호(72)씨.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金茂森 변호사가 말하길 趙경위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자녀 2명인 박정호(47)씨를 살해한 박정호(72)씨.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인도를 1월 10일 계속 종파고 했다.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진심포로한 趙경위 兄 趙漢俊씨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18일 治安本部서 가족 데려가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뒤집어 쓰기로 했는데 불만 표시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수감 두刑事는 직접拷問안해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安斗熙씨 피습사건의 자극받아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면회 때 刑量 등 물이 퍼 심한갈등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서울 22일 특파원 김기현 기자】

